

축사

강 승 삼

한국지리교육학회장

안녕하십니까?

21세기를 28일 앞두고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리학 관련학회가 연합하여 한국지리학회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
오늘의 현 상황은 지리학 연구의 1세대가 퇴진하고 2세대가 퇴진하려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. 초창기에 지리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그 정신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하여 시간과 건강을 제쳐놓고 21세기 삶의 질과 지리학의 주제를 발표하실 초창기 은사 선배 연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.

저 자신도 1968년 대학강단에서 출발한 이래로 현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 적을 둔 지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 생각해 보면 1968년 당시 상황과 오늘 이 상황과는 양적,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되었습니다.

초창기 지리학 발전에 개척자적인 1세대들이 퇴진하고 2세대, 3세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 각국에서 지리교육을 받고 국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. 그 결과가 2000년에 세계지리학회대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결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.

그러나 오늘의 현실과 상황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반성할 점이 산재

해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첫째는 모든 학회가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고 그 운영도 중앙집권주의 혹은 서울 중심주의입니다.

둘째는 학회운영이 대학 중심주의라는 점입니다. 지리학을 전공한 분들 중 중, 고등학교 지리교사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대학에서 그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

셋째는 지리학은 지역,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학문입니다. 그러나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외면하고 지역차별을 당연시하고 국가의 불균등 발전을 방관해 온 것이 오늘의 지리학도가 걸어온 길이라고 반성해 봅니다.

넷째는 위치, 입지, 이동, 지역, 공간, 환경 등이 지리학의 중심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각 대학에 설치되고 있는 연구 대상이 유사한, 지역학과, 환경학과, 지구환경학과, 지리정보학과에 대한 앞으로의 태도 및 대처방안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.

끝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기준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새 출발을 해야 할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아무쪼록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러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고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.